

<wheel and deal>
한황수 개인전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패널_황아람 기획자

2020.04.26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한황수 저는 김인선 선생님이 소개 해주셨듯이 사진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그 사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 관련한 사진작업을 차례대로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전공하면서 정통 스트레이트 사진을 잘 안하고요, 제가 주로하는 거는 여러가지 사진들 모아져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사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그런 작업을 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 이제 저희가 천장을 바라보았을 때 천장에 보이는 구조물들을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원이나 선이나 이런 조형요소들로 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치하고 나열하면서 만든 사진작업이었습니다. 이거를 전시를 할 때, 이제 제가 저 스스로 넣었던 사진 작업 안에서의 색깔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키고자 해서 맞는 색테이프로 천장과 바닥을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했던 장면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첫 개인전을 할 때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사진작업인데, 위와 같은 형식의 액자로 작업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우연히 주은 레고들을 가지고 설명서 없이 만들어 쌓아가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다음에 그거를 한 장에 모아놓은 조합사진 시리즈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명도가 전혀 서로 다른 레이어들이 서로 겹쳐져 있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같이 전시 했었던 시리즈였는데, 이거는 약간 식물에 가려진 표지판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 스스로의 맘에 드는 색, 이 당시에는 제가 파스텔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색으로 조합을 하고 배경을 하면서 만든 작업이었고요. 그 소스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한 그루의 나무가 될 것 같아서 디스플레이를 일부러 이렇게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7년도의 개인전이었는데요, 어, 이 작업은 이제 제가 한 중고차의 광고 영상을 유튜브로 본 다음에 그 영상을 여러가지, 어 수 백장의 jpg로 캡처를 한 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길, 각각 따와서 한 장으로 사진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를 제가 만들 때는 자동차 c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자동차가 등장하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게 단종된 자동차의 광고영상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빼고 나서 저만의 풍경사진을 한 장을 만들고자 해서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변상환 작가님이랑 2인전을 했을 때 작업인데요. 세 개의 영화를 편집을 해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배열을 한 겁니다. 세가지의 영상을 다 캡처한 다음에 색깔이나 이런

형태의 구분을 해서 제가 배열을 한 다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는 형식의 이런 이미지를 했던 작업입니다. 한 장 한 장 서로의 연결성은 없지만 그게 어느정도 제가 주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관객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이렇게 좀 흐르게 하도록 의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제 나의 라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따 기획자님이 제대로 소개를 시켜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작가님들의 전시장 촬영을 하고 제가 50분 정도의 작가님들의 사진을 찍었더라구요. 그게 jpg로 한 4000장 정도 쌓였었는데, 그거를 한장한장에 제가 열어보면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제외한 부분을 관찰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조형적인 부분들을 떼 와가지고 한장한장에 모아봤습니다. 어떤 거는 티가 많이 나는 합성사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제가 자연스럽게 유도한 사진도 있고요, 한 사진에 세 공간이 다 들어간 사진도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제가 넣어서 조합 했었던 시리즈가 이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작업을 같이 하면서 어...텍스트에 관심이 많아서 텍스트 작업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사진 작업 밖에 없지만은 제가 항상 텍스트와 라임에 대한 그런 거에 좀 흥미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고 이제 글도 쓰고 그 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뭐 옛날에 길에 있는 전광판 글씨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촬영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상 작업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제가 랩 가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라임이 들어간 뒤죽박죽 문장들을 한 구석 벽에다가 붙인 다음에 이런 시트지 작업으로 표현해본 적도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 같은 문구의 제목이 들어가는 작품도 한번 만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 아까 그 시트지로 했었던 문장들을 떼 와가지고 문장 문장이 이제 이때 중고차에 관련한 전시여서 중고차 폐차된 부품들 위로 흘러 보내는 이런 영상도 한적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계속 글을 쓰고요. 그 글을 한 인스타 계정에 올리는데, 그 쌓인 글들을 가지고 제가 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거예요. 어떤 적은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상과는 관련이 없는 텍스트지만 텍스트가 자막처럼 나오고 이게 헤드셋을 끼면 제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작업으로도 표현을 해본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의 작품 제목이 나의 라임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텍스트나 어떤 걸로나, 이미지나 텍스트나 라임을 생각하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작품들이 이제 합성한 요소들이 어울리는 장면이 있고 안 어울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라임을 뭐 힙합퍼든 라임을 억지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미지 안에서 제 마음대로 억지로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거랑 자연스러움이랑 같이 있는게 제가 생각하는 라임인 것 같아서 제목은 제가 나의 라임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음 기획자님이랑 작품 인스톨레이션 할 때도 같이 배열을 하면서 좀 제 주관적인 눈에는 지금도 보이는데 되게 좀 어수선하고 그런 이미지 작품이랑 좀 더 안정적인 작품이랑 서로 이제 골고루 배치하려고 기획자님이랑 상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라임 갖다 붙이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제목과는 다르게 작품 제목이 나의 라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이미지작업이나 텍스트 작업은 과거에 했었던 것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김) 황아람 기획자신데요, 지금 소쇼룸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과기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전시 기획관(?)에 들어가셨죠. 합격, 유일한 1인. 그래서 전시 기획으로도 본격적으로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주로 공간을 ----방식으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해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공간이 지금 서촌?

황) 네 서촌, 북촌 북촌

김) 여기가 서촌

황) 네 여기가 서촌

김) 북촌 쪽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쇼룸에서 여러가지 전시를 내면 1년에 7~8번씩 하고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전시도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 저는 황아람 기획자이고요. 어쨌든 어 좀 크게 말해야겠죠? Pt를 이제 봤으니까 pt를 넘어가기 전에 저도 한황수 작가의 pt를 보고 느꼈던 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점? 그리고 이번 전시와 이어지는 점들 요런 것들을 점들을 짚고, 이번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한황수 작가를 만났을 때 이 pt를 봤는데, 어 이 pt를 보면서 한황수작가가 말하기를 매번 새로운 작업을 한다 라고 첫 소개를 했었어요. 이 pt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매번 새로운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그 이 작업들을 관통하는 일정한 생각들이나 방법론이 있는 것 같 다라고 처음에 느꼈었고 그것들이 이제 이 전시를 같이 준비하고 또 그 후에 얘기들을 하면서 어 그것들이 뭘까 곰곰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들이 먼저 있었었는데, 일단 제가 발견했던 지점은 작가는 매번 작업을 하면서 한정된 영역을 스스로 이제 음 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한정된 영역이 때로는 어떤 패널티가 있는 영역이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 레고 작업처럼 물리적으로 한정성이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작가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그 안에서 어떤 시각적인 변화들을 계속 만들어내 는데, 매번 매 작업에서 느껴지는 그 규칙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작가가 만들어 내는 일종의 플레이 같은 것들이 이 전체적인 어떤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것들인데 이게 왜 중요한 작가한테 왜 중요한 걸까 라는 질문이 먼저 들었었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제 나름대로의 해석 이 있겠지만 일단 먼저 작가님께 작가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 그 레고 작업이랑 시트지 작업 같은 거를 보시면 아 뭐 제가 스스로 룰을 정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요. 제 생각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룰을 정한 거는 그 제가 더 즐기기 위함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약간, 제 생각에, 저도 스스로 하면서도 제 확장성을 막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좀 열어놓고 좀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다른 소스도 이용해보고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최대한 쪼달리게 만든 상태에서 만드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분명히 사진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긴 한데 그 가지고 있는 사진, 그니까 100장이

면 100장안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강박관념에 스스로에게 매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 작품들 안에서 작품을 만들면서 새로 찍은 사진을 넣은게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해결하자는 생각이 첫 번째고, 처음에 생각했던 게 가지고 있던 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새로운 촬영에 임하면 새로운 촬영에 임해서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좀 더 머리를 굴릴 것같은 느낌이 드는거예요. 그니까 음,, 어떻게 말해야하지 약간 낯것과 좀 어설픈 느낌의 이미지를 완성하고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완전히 뚜렷한 뭐 어떻게 말하면 완전한 동그라미, 완전한 네모를 만들고 어, 만들 자신이 없다고 해야하나. 그거보다는 러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황)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한황수 작가가 얘기한 내용은 제가 들었을 때는 계속 '어떻게'라는,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내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작업에서도 pt 작업에서도 그 부분이 되게 강조 돼서 반복이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물음표가, 큰 물음표가 하나 뒀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설명하고 되게 열심히 보여주는데, 뭘 만드는지는 한번도 나오지가 않는거예요. pt에서. 그니까 그동안에 작업에서. 물론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있어요. 레고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정확한 구체적인 대상은 있지만 그 대상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가공을 하면서 정작 그 대상을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방법론이지 않았나 계속. 그 부분을 첫번째로 흥미로운 지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 작가가 계속 그동안 한 13년작업부터 나왔죠. (그쵸) 2013년부터 지금 꽤 오랜시간인데 그동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작가라기보다는 이 작가는 계속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자기가 보는지 어떻게 자기가 말하는지에 관심이 더 많은 작가가 아니었다. 특히 그 단서가 됐던 것도 이제 pt가 사실 두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이미지 작업 위주의 하나의 pt가 있었고 두번째는 텍스트, 근데 사실 텍스트 작업이라고 했지만 사실 텍스트를 보여주는 실제 작업은 텍스트라기 보다는 이미지가 많은 작업으로 어쨌든 맥락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어, 텍스트 작업에서 라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구요. 이 무엇을 말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거에 작가는 중점을 두고 있구나. 온 관심이 라임이라는게 사실 의미를 전달하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언어유희적이고 어떤 리듬감을 만들어 내는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 작가가 어 꽤 어쨌든 상당기간동안 작업을 이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전반적인 방법론이 내재되어 있는 작가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 pt를 소개받으면서 이제 초반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예요. Pt에 대한 저의 소감. 질문은 이게 사실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그니까 파트를 한 세개로 나누었거든요. Pt 파트랑 전시주제에 관련된 부분이란 전시 준비과정과 아웃풋. 준비과정이란 아웃풋은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이니까 뭐 이정도인데. Pt에 관해 질문을. 만약에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황) 전시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저희가 올해 2월 초에 만났어요. 올해 2월 초에 만났고 서로 정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이제 그 시기가 근데 보통 개인전에 기획자, 이 얘기를 살짝 먼저 하고 해야할 것 같은데요. 개인전에 기획자가 인제 같이 작업을 하는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뭐 요새 많긴 많지만 그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다른 작가의 개인전에 기획으로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매번 달랐던 게 어떨 때는 서포터의 개념으로 어떤 전시를 준비한 적도 있고, 때로는 정말 행정적인 것만 제가 거의 코디네이터의 수준으로 한 적도 있고, 때로는 작업의 준비과정부터 제작, 실질적인 전시까지 전반적으로 되게 거의 뭐 팀작업이라고 할만큼 깊숙하게 개입한 적도 있고. 그 레인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어쨌든 한황수 작가를 2월달에 만나고 4월 10일 날에 오픈을 했으니까 사실 긴 기간은 아니었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작업이 진행상황이 한 80프로 정도? 70프로?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고 아웃풋은 최종 아웃풋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였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진이 한 작업에 레퍼런스 소스가 되는 사진이 거의 몇 백장에서 몇 천장까지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계속 가공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최종 아웃풋은 어떻게 할 지 결정이 안된 상태고 물론 그러므로 전시의 최종 아웃풋도 결정이 안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작가와 만나서 작가의 그동안의 작업 스타나 여러가지 방법들, 해온 내용들을 하고 빠르게 미팅을 하면서 디벨롭을 시켰었는데 제가 포착했던, 아까 pt에서 저의 감상에서도 있었지만 포착했던 부분이 한황수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방법론이 되게 위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트 있다는 사실 되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빠끗도 하고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고 이런 게 사실 위트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위트 있다고 생각했고, 방법론에 솔직한 본인의 작업 행위를 그 방법론에 맞춰서 솔직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정한 방법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를 하는 것을 포착을 했었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두번째 포인트는 윌링앤딜링이라는 대상이었어요. 그 pt 얘기를 다시 잠깐 다시 하면은. Pt 그 이전 작업에서 대상은 되게 여러 개였거든요. 그리고 계속 바뀌었었어요. 그 하나의 대상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작가는 대상을 뭐 길가다가 주는 레고에서도 찾고 길가다가 본 표지판에서도 찾고 되게 거리낌 없이 대상을 골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른 대상이 윌링앤딜링이었는데, 사실 윌링앤딜링을 고른 이번 케이스는 이전과 조금 달랐거든요.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를 한 근무지였고, 전시를 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작업의 소스와 레퍼런스가 되는 그 자체였고 그리고 작업의 대상이기도 한 이 윌링앤딜링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부분에서 생각을 해야만 했어요. 왜 작가가 윌링앤딜링을 골랐고 이것들을 어떻게 자기만의 방법론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작업이 70퍼센트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봤으니까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 이 한 사진의 몇 백장에서 몇 천장까지의 소스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냐면 공간과 장소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좀 머리를 굴려봤어요. 장소라는 거는 로케이션 이잖아요. 장소는 좌표같은 거고. 장소는 어떤 의미나 어떤 거기에 내용물이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나의 지도 위의 어떤 점이지. 근데 공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간은 우리가 딱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공간 안에는 무언가 있다고 딱 상정하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 공허죠. 보이드라고 보이드는 공간이라고 보통 말을 안하잖아요. 공간

은 무언가 들어있는 것들. 작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작업의 대상이자 레퍼런스이자 본인의 근무지이자 작업의 결과물이자 전시 장소까지 되는 그리고 본인의 기억과 시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소스들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이제 그 한장 한장의 어떤 장소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쌓아 올려 가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은 공간이 되는데 오히려 아니지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이제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좀 다른 공간이었던 거죠. 한황수 작가의 방법론이 들어갔고 한황수 작가가 바라본 공간은 그 실재하면서 실재하지 않고 한황수 작가의 시간과 기억을 불러내지만 그것들을 또 읽어 내진 않고, 그 공간을, 대상이 되는 공간을 계속 구체화 시키지만 그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아이러니, 어떤 역으로 생겨난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전 pt에서 생각, 바라봤던 관점에서 돌이켜보면 작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쉽게 말해서 윌링앤딜링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윌링앤딜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윌링앤딜링이라고 생각 했던 사진들을 모아서 어떤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건 윌링앤딜링인 아니었던거예요. 결국에는 작가가 이전작업에서 보여줬던 무언가, 무엇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이 공간에 뭐가 있고 이 공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어떻게 있는지 과거와 현재의 장소들이 모여서 만든 이 공간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떤 본인이 그 보이고자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되게 위트 있으면서도 또 교묘한 방법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윌링앤딜링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결과적으로 제 해석으로 보자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시 주제와 연결 지어서 전시 제목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사전도 찾아보고 생각하다 wheel and deal 이라는 속어가 생각이 났었어요. 마침 윌링앤딜링이랑 발음도 비슷하고 스펠링도 비슷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짓게 되었죠. 엄청 길어졌네요.

한) 뭐 저도 보고 읽으면서 떠오르는 게 조금 있는데, 저도 무엇이 있는지 보다는 어떻게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작품들도 그렇고 그게 명확하게 이게 뭐다 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자투리를 가져와서 완성시키는 것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서 이제 뭐 그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내포하고 있는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나 그런 거를 원하잖아요. 찾고? 이걸 왜 찍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대상들을 이제 히 말해서 모서리, 벽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것을 즐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가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죠. 관객분들이 오시거나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할 때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드리죠. 원래 뭐 어떤 조각품이 있던 작업인데 조각품을 지우고 좌대만 남긴 예요 이런으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저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보시는 분들에게는 사진이니까 그림이 아니니까 뭔지는 뭔가를 찍은 거잖아요. 딱 보면 모르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아 이게 그거구나를 느끼실 때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가 더 중요한데

황) 방금 요 얘기, 요 관객의 질문과 작가의 질문에서 재미있었던 점이,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했

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한) 지금 추가 시키는 건가요?

황) 아니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나름의 어떤 상황을 생각했던 게 작가가 관객에게, 가끔씩 물어봤어요. 관객들이 오면, 항상 계시니까 관객을, 관객의 피드백이나 질문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되게 사실 되게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가 항상, 보통 작가라고 있으면은 질문을 안하는데 갤러리에 있는 분이면 쉽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봤어요, 만날 때마다. 어떤 질문 받았냐 어떤 코멘트를 받았냐. 이 부분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작가가 분명히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찍었고, 이거는 이 부분이었고 이거는 언제 어떤 전시에서 어떻게 나왔고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질문한 관객은 결론적으로 그 공간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 상황이 아닌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게 미스매치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황수 작가의 작업에 관통하고 있는 그 실패한 메시지? 매개체? 실패한 매개체가 아닌가. 작업 자체가. 의미를 계속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작업이 가지고 있는 한황수 작가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물어보면 힘들까요?

한) 예, 저는 실패란 단어를 듣고 지금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대본에 있었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되었다 잘됐다다 아니라 누구한테는 잘됐고, 누구한테는 다른 의미로도 전달될 수가 있는건데 제가 뭐 오렌지 주스를 찍고 이거를 전시하는게 아니니깐 결국은 제가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 작품을 만든게 아니라 그게 음 모아진 상태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걸 즐겨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건데. 그래서 그런가요?

황) 관객의 질문은 원하는 답이 있었다고 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음) 관객의 질문은 다시 말해서. 아까 이 얘기를 좀 피하자고 했는데 피할 수가 없네요.

한) 아니에요 이거 피해도 돼요. 패스 패스

황)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객의 질문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라는 why의 질문이었는데 how로 계속 대답 한거죠. 그래서 why의 대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뭐 쉽게 생각하면 어떤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량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작업과정에서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pt에서 봤듯이 2013년도부터 나오거든요. 아무리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였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지속 될리가 없다. 이거는 작가가, 작가의 내재된 방법론인데 그것이 아직 제 3자한테 언어로 그 정갈하게 전달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잖아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랑 그게 언어로써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괴리죠.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why의 대답의 상당기간의 작가활동을 통해서 how로 대답 하는 한황수 작가의 작가적 캐릭터가 아닌가. 만약에 제가 2013년도에 작가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생각 안했을텐데,이 시점에서 작가를 만나고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의 계속 작업하실 거니까. 앞으로의 작업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이전작업에서 산발적인 나 이렇게 how도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how도 해봤어 라는 작업에서 이번 전시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how의 문제에서 how와 why가 어떤 브릿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저도 이번 전시가 좀, 기획자님과 같이 하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기선 저거 했다가, 저기선 저거 했다가 이런 식의 전시를 계속 했는데, 뭐 요번에는 이제 결국은 제 작업들 중에서 2013년도 작업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전시인데, 그 천장을 합성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형식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때와 3년만에 하는 개인전이기도 하고 제일 잘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시작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식의 전시를 생각하지 않아요.

황)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다음 질문, 전시 준비과정에 대해서. 개인이 아닌 기획자와 준비하는 전시 작업에 대해서 어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기도 했고, 작가의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한) 뭐, 개인전인데 왜 기획자가 필요하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죠. 어디까지 기획자가 개입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들었고 저도 이제 기획자님이랑 처음 해보는 건데. 일단은 작업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고, 제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йд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사각형이었던게 다음에는 정사각형이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변화하는 걸 같이 지켜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협동, 협동이라고 해야하나요? 저는 작가와 기획자이지만 어느정도 작품을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있는게, (크레딧에 넣어줘요.) 회화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추가를 하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끝이 안나거든요. 언제 끝내야하는지 아무도 말을 안해주는 거고 제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건데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미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투머치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이게 막 지금 보이는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복잡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 건 이제 어느정도 개입을 하신거죠. 이건 너무 복잡하지 않나 이런 감상을, 저한테 감상평을 한 건데 저는 그걸 받아들인거죠. 나는 더 넣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 어느정도 귀를 기울였다고 표현을 할게요. 좋게 표현하면. 우유부단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작품에도 어느정도 개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황) 결정은 작가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솔직하게 말한 거였어요.

한) 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아까 실패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였는데.

황) 되게 긍정적인 말로 표현한, 아니었나요?

한) 되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좋다. 재밌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터치해야 할 거를 터치 해주셔서 저는 만족을 하죠. 기획자님과 같이 한 것을.

관객) 질문해도 되나요? 저는 그냥 일단은 감상평이라고 해야하나. 이게 약간 제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한황수 작가님의 전시가 윌링앤딜링의 공간의 특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게. 사실 최근에 공간의 목소리,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전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들 와중에 작가가 자신의 특징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시도 굉장히 많고 공간의 특징이 작가의 특징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윌링앤딜링이 10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공간의 특징을 보여주는게 작가의 특징을 우선시 했다고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윌링앤딜링이 자신의 공간의 목소리를 뭔가 회고전이라고 해야하나 잘난 체를 할 수도 있을 법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작가 중심의 전시를 해 왔잖아요. 사실 8년여간의 전시 기록물이 4000여장이 남아있는 아카이브 자체가 대단한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간을 8년여간 이 공간을 같이 운영을 했던 사람의 작품으로 소개한다는 것이 윌링앤딜링 다운 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How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해야하나. 작가님의 그 태도가 윌링앤딜링의 태도와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gdy. 뭔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 자체와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성실함이 작업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전시이고, 그게 또 윌링앤딜링을 보여주는 것 같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작가님이 8년동안 윌링앤딜링에 있으시면서 작가님에게 윌링앤딜링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황) 사실 이 전시의 필수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한)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황) 나온 김에

한) 어, 정말 많은 작가님들을 보았잖아요. 지금이 60번째 전시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50번째 전시에 참여를 한건데, 그 일단은 많이 배우는 학교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진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거 만들려고 하고 자꾸 어디에서 본거 따라해보려고 하는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원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실 할 줄 아는 건 사진밖에 없는데, 자꾸 이상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아마 제가 윌링앤딜링이라는 공간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겠네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를 계속 하게끔 만들어 주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배운 것을 활용을 해야하는데 앞으로 계속 활용해 나가야죠.

관객) 뭔가 전시제목 wheel and deal도 보고 작품의 소재도 그렇고,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작가가 작품의 제목, 주제, 소재 모든 걸 어떤 한 공간으로 정한다는 게 작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지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서 전시를 보는데 단순한 애정 이런걸 떠나서 하나임을 받아들인 느낌같은 것도 있고 공간이랑. 땀해야 땀 수 없다는 게 느껴지면서 작가님의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 작업이랑 다른 점이랄까요.

황) 그 배짱이 저는 작가의 아까 캐릭터를 얘기를 했지만, 그 배짱이 캐릭터의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의미의 함몰되지 않고, 의미에 얽매이지 않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게 작가의 가장 큰 특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전시 제목을 괜찮을까 하고 던졌는데 흔쾌히 오케이 했던 게 사실 다른 작가였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되게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멋있는 제목이었어요. 작가들이 전시를 제목 할 때 많이 생각하잖아요.

김)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윌링앤딜링이라는 스펠을 안봤을 때는 wheel and deal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는 되게 빨리 빨리 팔고 그러는 엄청난 상업화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국 갤러리스트들도 윌링앤딜링이랑데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딜러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얘기 듣고서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윌링앤딜링이라는 이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루어본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가지 미술계에서 비영리, 영리, 대안공간, 상업화랑, 미술관 다 나누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여기서 뒤섞여서 보여지면 좋겠다는 취지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제목이라고 하는 전시 제목을 두 분이서 제안을 했던 게 굉장히 제가 들었을 때도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윌링앤딜링을 떠올리면서 wheel and deal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같이 가는게. 한황수 작가가 랩을 하세요. 랩. 그래서 랩 가사도 만들고 실제 랩도 해보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 가서 되게 잘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서 그런 라임, 텍스트를 다루는데 있어서 되게 유기적이고 뭔가 만들어 내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제목과 공간의 이름이랑 잘 맞는 한황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맘에 들었고, 아까 기획자님이 뭔가 관객과의 소통에서 관객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실패라는 단어로 사용하셨는데, 저는 그 단어가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황수가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는 여러가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재미있게 듣고 어떤 사람은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우리가 경험 했던 공간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 공간을 처음 온 사람에게는 하나도 공감이 안되는 거예요. 방배동에 있었고, 여기는 경리단이고, 방배동이고 이야기를 해줘도 알게 뭐야. 그런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거를 또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봐야하고 그 지점에서 어떤 서로간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 발생하는 거 자체가 이 작업에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캐치를 해 주신게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한황수 작가의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을 짚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었구요. Pt, 실패한 소품이라던가 본인은 how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작가들이 본인의 작업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한 과정이야 심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듣기 때문에 작가가 본인의 작업의 완성에 있어서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되는 것도 작가입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statement를 쓰게 할 때는 내가 뭘 했다고 쓰지 말고 김인선이 이거를 다룰 때, 이 매체는 어떻게, 3인칭으로 써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작품에서 온전히 떨어져 나가서 본인이 이 작품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황) 어, 관객의 코멘트 중에 기억이 나는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하냐? 이런 질문을 다수의 관객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미스였어요. 처음 작가를 만나고 이 전시를 준비했을 때,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공간에 못 가봤거든요. 제가 그 관객의 입장이었어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을 모르는 관객의 입장이었어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지만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아닌 공간을 떠올렸었고, 이거는 작가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고, 작가가 어떠한 대상을 임의로 떼어내서 이것을 다른 형태의, A를 A-로 만드는 이 방법론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했던거예요. 어쨌든 그런 피드백을 받고 나서 되게 놀랐죠. 내가 그런 질문을 안 던졌다고, 남도 안 떠올리지는 않구나.

그 질문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조각들을 가져왔지만 결국 만들어진 건 없는 공간을 가져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빠고 조형적인 공간 이미지로만 봐주세요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다고 해야하나 배웠다고 해야하나 그런 느낌이 드는게 저는 항상 다음 전시나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 이전 것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작품 박스로 넣어두고 다른 것을 시작하거든요. 그게 저만의 룰이나 고집같은 건데, 그것을 약간 깨게 해준 게 어떤 분이 다른 공간으로 이 시리즈를 만들면 되지 않나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던 거죠. 이거 말고 다음번에는 산 가지고 만들까, 뭘 가지고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인데 다른 공간을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한 특정공간이 아니더라도 여러 공간에 만들거나 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방식처럼 소스를 다른 소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신 거죠. 이 소스 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다른 소스를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야 겠다라는 코멘트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확장성을 주신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윌링앤딜링 공간으로 만든 시리즈라고 하면 다음에는 다른 공간이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김) 근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또 확..

황) 제가 질문할게요. 정확히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작가가 바라보는 공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역시나 우리 한황수 작가는 가볍게 퍽퍽 다음 걸로 넘어갈 생각을 벌써 하고 있죠.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혹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황수 작가가 바라보는 공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 왜냐면 윌링앤딜링에 본인이 8년동안 축적한 아카이브를 활용했다라는 게 작가입장에서는 되게 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공간도 해봤으니까 다른 공간도 해봐라 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이렇게 조합해서 내가 잘 아는 시간과 경험이 축적된 어떤 것을 아웃풋으로 만들어서 이걸 객관화 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던 때하고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걱정하고 그 공간에서 이 작업을 위해서 찍은 설정된, 연출되는 어떤 게 발생되게 되고 여기서 그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찍어왔기 때문에 사이즈도 최대 사이즈가 저만한 정도고 작은 사이즈로 밖에 구현이 안되는 몇가지 제약들이, 제약이라고 해야하나 조건들이 생겼

잖아요. 다른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작품으로써 이 공간을 대해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와 화소와 화질을 생각하면서 이게 작품으로 구현될 것까지 막 염두 해두고 작업활동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찍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작가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의미가 생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장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하고는 다른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한) 그 분은 이제 그렇게 말하신 게,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스를 모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만데 취직해야하나

한) 늦었습니다. 다른데 취직하려면 마음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게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게.

김)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전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관객)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쪽 봐왔던 작업하고 지금 여기 있는 작업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뀐게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왜 보여주냐고 그렇게 하는 순간 망할 것 같아요. 계속 한황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다음거 상관하지 않고 가볍게 뛰어가고 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왜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누군가가 다른 대상을 해보라고 했을 때 그거에 혹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는게 똑같은 것 같아요. 윌링앤딜링에서 60개정도의 전시가 있다면 제가 30퍼센트 정도를 봤을 텐데 제가 되게 반가웠던 것은 요소요소에서 저건 홍승혜 선생님 전시 때 있었던 거네 하면서 발견하기도 했지만 전혀 윌링앤딜링 같지 않아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라임으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라임으로 뭘 했다는 거지 싶었는데, 계속 보다보니 뭔지모르게 '어떻게'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왜를 하지 말고 '어떻게'를 계속 해서 어떻게 전문가가 되면 어떨까요?

김) 좀 작가들이 너무 난 이렇게 이런 색깔이 예뻐서, 이런 모양이 예뻐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설명을 하려니 너무 어렵다. 딱히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시각적인 것 때문에 한건데 설명을 자꾸 요구를 한다 라는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젊은 작가들,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탄탄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걸 보면서 또 요충(?)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다면 시각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 성향을 자체를 가졌고. 그랬을 때 한황수 같은 경우는 아직 젊고 워낙 여러가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의미론적인 것도 기회가 된다면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파편들을 모아서 다시 조합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만족을 하면서 거기에 유기적으로 계속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지금 딱 선택을 해서 가는게 맞느냐 아니냐는 작가가 연구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상태로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보이긴 하지만 기획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관람객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여기서 더 이 사람에게 뭔가 있을까 갈구하는 것도 분명 있을텐데, 그것을 충족시켜줄까, 내 방식대로 할까 이것도 아마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참고로 하는 것이.

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제가 의미를 배제하고 껍데기로 무언가를 막 만든다고 하면, 더 보기 좋게 쉽게 말하면 좀 더 예쁜 이미지를 노력해서 만드는게 제가 갈 길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황수의 작업에는 아예 이미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만 어떤 것만 남기거나 배제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방배동에서 한 개인전에서는 아까 잠깐 시트지로 짝 펼쳐 보이는 작업같은 경우에는 0.5평도 안되는 화장실 내부를 확장시켜서 이미지화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개인의 주거, 공간의 이런 것에 대한 패러디같은 것을 랩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토로하는 랩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무언가 의미를 강력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 항상 있었고 그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시각적인 부분에서 건드려주면서 근데 좀 더 지금은 시각적인 부분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해 보일 수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황)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작가의 활동에 제가 뭐 제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바람 같은 게 있다면, 작가가 제가 여태껏 장황하게 말했던 것이 작가는 의미를 배제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실패라는 단어를 썼듯이 배제가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 했었어요. 이거를 계속 미끄러지는게 한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오는게 이 자체가 작가의 캐릭터 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작가와 계속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미끄러지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자기 필터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황수라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끄러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피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미끄러짐을 마주해야되는 것 같아요. 자기 활동으로. 때로는 그게 한쪽이 우세할 수도 있고, 이쪽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미끄러짐은 계속 한황수 작가의 작업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한)이래서 미술이 재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와 미끄러짐이 좋게 순화해서 표현해주는. 이게 다 저의 거름같은 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다 재미있습니다.

황) 준비한 것은 이게 끝이고, 질문이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관객) 이런 (?)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소중한 지인으로서 아까 왜라는 질문이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토크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스페이스 윌링엔딜링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한황수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황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능력의 한계가 주변환경의 한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한계가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한)침이 나오네 웃긴 얘기가 아닌데.

관객) 정리하자면, 인간의 한계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정해진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작품들이 다른 외부에서 (69분 46초) 내가 정해진 한계 속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관객) 저도 공감하는게 예전 작품도 진지한데, 웃긴 일맥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자기애같은 그런 요소같은 것들이 작품에 항상 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시각적인 작품에서의 자기애가 뭔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다가도 제목이 너무 나의 라임인거예요. 그 부분은 놓치지 않는 작가의 그 자기애 부분이 예전 작업들도 진지하긴 한데 웃기면서도 이게 작품이 부끄러움이 없는 작품 있잖아요. 그런게 느껴졌거든요.

한) 저는 저 스스로 뻔뻔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되게 속쓰러움 많이 타고 그러는데, 근데 매번 토크 때마다 자기애라는 말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첫 개인전 제목이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 임이었고 뭐 그렇게 보인다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관객)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변함이 없어요.

황) 캐릭터가 확실히

한) 하지만 요번은 자기애가 좀 약하다고. 작품 제목 때문에

황) 나의 라임, 그게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한)작품제목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황) 예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한) 고생많으셨습니다.